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 5.(금) 11:30 배포 2024. 1. 5.(금)

동해가스전 활용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arbon **C**apture **S**torage, 이하 CCS)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월 5일(금)에 개최된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서 '동해가스전 활용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실증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핵심기술 확보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산업 생태계 조성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2조 9,529억 원, 사업 기간은 6년('25 ~ '30)으로 기획되었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이 부상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미·유럽 등에서는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사업(프로젝트)이 운영 중이다.

'동해가스전 활용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실증사업'(산업부 주관, 해수부 협조)은 울산·부산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허브 터미널에서 압축·액화한 후, 해저 파이프를 통해 동해 폐가스전 고갈 저류 층에 주입·저장하는 사업이다. 2030년부터 연간 1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산업부는 산학연 전문가, 해수부·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20여 차례 이상 운영하며, 사업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참고) 사업 개요>

ㅇ 주요 내용: 동해 폐가스전 활용 연간 120만 톤 규모 CCS 기반(인프라) 구축 및 운영기술 실증
ㅇ 총사업비(안): 2조 9,529억 원(국비 8,169, 지방비 888, 민자 2조 472) / ㅇ 기간: '25~'30(6년)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반(인프라) 구축 및 기술혁신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에너지기술과	책임자	과 장	홍수경 (044-203-5150)
		담당자	사무관	김도형 (044-203-515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